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민관이 합심할 필요

- 산업부 장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현장방문서 밝혀 -
- 석화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8월중 밝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8.14(목) 12:00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개최된 LNG운반선 명명식 직후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갖고, K-조선 도약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도 민관이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제조산업정책관, 한화오션 대표(김희철) 등

김 장관은 지금 우리 조선산업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뼈아픈 시기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10년대 후반 수주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내고, 한-미간 관세협상의 핵심 업종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과거 조선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거울삼아, 석화업계 공동의 노력과 책임있는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하여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차관과 10여개 기업 대표간 개별면담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8월중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박종희 (044-203-4932)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